

전장연 지하철 투쟁 관련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도은*

본 연구는 미셸 페쇠(Michel Pécheux)의 담론분석 틀을 이용하여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탑니다〉 지하철 투쟁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생산하는 담론의 의미구성 방식과 주체구성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담론의 외적 개입인 선구성 기제를 통해 현실을 선구성하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담론의 내적 개입인 절합 기제를 통해 선구성된 주절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주체구성 방식인 호명 테제를 ‘우리(us)-그들(they)’ 구조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착한 주체와 나쁜 주체로 구성 및 호명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주체를 구성하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을 나쁜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새로운 실천유형을 생성하는 역동화시킨 주체들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미셸 페쇠, 담론분석, 선구성, 절합, 호명 테제, 장애인 이동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그래, 우리는 병신입니다. 병신이라도 당당한 병신이길 원합니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¹⁾의 한 장면으로 시위 중 시민들의 욕설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외쳤다. 한국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약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투쟁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뤄졌고 전장연 회원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요구사항을 알리며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이 지연되고 정상운행되지 않자 지하철 이용객들은 증도하차하여 다른 교통편으로 환승하거나 지하철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렸다. 전장연 지하철 투쟁에 대한 시민의 입장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이므로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편으로는 전장연 지하철 투쟁 방식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전장연 지하철 투쟁에 대한 국내 언론사들의 시각과 입장도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2022년 12월 19일 1호선 투쟁 도중 경찰과 코레일 직원들이 전장연 회원들의 열차 탑승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이어 탑승 저지… “기본권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며 장애인 활동가들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는 전문가의 인용을 덧붙여 보도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시위 8분전 장소 알린 전장연… “그만좀 합시다!” 지하철 시민들 항의’라며 전장연의 투쟁 행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겪은 피해에 집중해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세희(2022)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국어교육 적용 방안의 수업 사례 중 하나로 뉴스 기사 비판적 이해 수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언론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뉴스 기사 비판적 이해 수업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다른 관점의 뉴스 두 개를 보여주고 학생이 비교하는 활동이며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관한 두 개의 뉴스 기사를 그 예로 제시했다. 먼저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관한 뉴스 기사를 학생에게 보여주자 학생들은 “장애인이 잘못된 것”, “출근길에 시위를 한 것은 불법” 등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관점이 다른 두 개의 뉴스를 다시 보여줬는데, 하나는 ‘장애인의 시위는 잘못이 있고 시민이 불편했다는 관점에서 보게 하는 뉴스’와 또 하나는 ‘장애인 시위를 장애인의 열악한

1) 박종필(2002).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

이동권 현실 때문이라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뉴스'였다. 이에 학생들은 “장애인이 시위 해서 시민들이 불편했다는 것만 얘기한다”, “이 뉴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 줘서 장애인을 이해하게 해준다” 등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뉴스 텍스트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의 권력관계’가 드러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옹호되거나 반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의 뉴스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의 상이한 입장은 전장연 지하철 투쟁에 관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뉴스가 가공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는 언론의 시각은 각기 다르며 이야기를 전달할 때 구성하는 틀도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전장연 지하철 투쟁 및 장애인 이동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언론이 어떤 사실을 선택 보도하고 어떤 담론을 생산하는가로 이어지게 된다. 장애가 비주류인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직접 교류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장애인은 미디어가 재현한 언어에 기대어 장애를 이해하고 대하게 된다. 즉 미디어가 장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장애 담론 생산자로서의 언론 역할이 더욱 증시되며 따라서 이들의 담론 생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론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지 분석하고,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찾아내는 것이다(강진숙, 2016, 168쪽).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의 적대성에 주목한 미셸 페쇠(Michel Pécheux)의 담론이론은 전장연 지하철 투쟁 관련 담론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페쇠에게 담론은 동일한 언어체계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며, “단어, 표현, 명제 등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Pêcheux, 1982, p. 111; 강진숙, 2016, 171쪽). 즉 언어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는 것이며, 담론은 다양한 의미가 대립하고 주체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투쟁의 장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쇠의 담론이론에 근거하여 전장연 지하철 투쟁 담론의 의미구성 방식과 주체구성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보수와 진보 언론이 갖는 담론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페쇠의 담론이론에서 제시된 첫째 언어체계의 선택과 조합 메커니즘(선구성과 절합 기제), 둘째 이데올로기의 주체구성 방식을 이론적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국내 보수와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두 언론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투쟁 관련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선구성 기제를 통한 뉴스 담론의 의미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절합 기제를 통한 뉴스 담론의 의미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호명을 통한 담론의 주체화 구성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전장연 지하철 투쟁 관련 문헌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는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작되었다. 농성 투쟁의 둘째 날에는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 권리에산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및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선전전’을 위해 여의도역 발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하여 투쟁을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는 2022년 12월 2일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1년 간 진행된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해 투쟁하며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2년 7월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만 18세 이상 남녀 9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및 시위에 관한 인식 조사’²⁾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장연 측 주장 및 요구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으며, 장애인 이동 편의 조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절반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장애에 관심이 있거나 장애인 지인이 있는 응답자는 시위에 대한 공감 및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장애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과 직접 관계를 맺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주지하였다.

각종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전장연 지하철 투쟁 및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왔다. 오혜진(2022)은 2022년이 미디어에서 장애 인권과 재현에 관한 소식을 끝도 없이 접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한 해였다고 회상한다. 예컨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2) 본 논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지하철 투쟁’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시위’로 표기하였기에 인용문에서는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및 삭발 시위'와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NA), 폭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변은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과 그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 즉 오늘날의 '시민-됨'을 사유하는 첨예하고도 묵직한 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장애인이 소수자 운동에서 가장 비타협적인 투쟁의 주체로 부상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시민성과 인간성의 논의가 질적으로 전복되고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한진(2023)은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따른 갈등과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적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이동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고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비장애인 시각에서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된다. 인감됨의 기준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교통체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축 및 운영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유진우(2022)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구조임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에 대해 "시민들의 출근길을 불모 삼는다", "비문명적 불법 시위를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는 이와 같은 발언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놓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왜곡한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명숙(2022)은 서울시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 때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여러 인권 문제가 얹혀있는 문제임을 꼬집는다. 비록 소수자들의 저항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주류의 일상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전장연 지하철 행동을 통해 그간 다수인 비장애인에 의해 소수자인 장애인이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했었음이 폭로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편타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장애인을 시혜적이고 동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이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경험과 앎을 존중하는 태도가 견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담론이론

1) 담론의 의미 구성 방식: 선구성과 절합

담론의 성격은 일정한 언어적 요소들 간의 관계들이 담론 내에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을 선택 및 조합함으로써 규정된다. 언어체계의 사용이 상이한 이유는 담론의 내부 및 외부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비롯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단어와 표현, 명제들

을 선택 및 조합한다. 폐쇄의 담론 이론은 담론 내부의 의미 생산 방식과 외부와의 관계를 밝혀 지배권력의 재생산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강진숙, 2006). 따라서 여기에서는 폐쇄가 제시한 ‘선구성(the preconstructed)’과 ‘절합(articulation)’이라는 두 기제를 통하여 담론의 의미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폐쇄가 ‘끼어듦의 효과(the embedding effect)’라고 설명한 선구성 기제란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담론에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담론 외적인 개입이다. 말하는 주체는 이 기제를 통해 담론 속에서 보편적 주체로 호명된 개인에게 “현실성(reality)”을 제공한다(Pêcheux, 1982, p. 113; 강진숙, 2006). 이때 현실성(reality)은 실재(the real)와 다른 것이다. 전자인 ‘현실성’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에 대한 환영적 이미지라면, 후자인 ‘실재’는 이데올로기의 “외부(exterior)”로서 특정 역사적 순간의 생산관계와 계급관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Pêcheux, 1982, p. 183; 강진숙, 2006). 따라서 화자는 선구성 기제를 통해 상상적 이미지들을 전달하고, 그 이미지들은 ‘현실성’ 효과에 의해 오인되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그리고 그 주장에 함축된 당위적 주장 등을 말한다(홍남희, 2016). 예컨대 강진숙(2006)은 폐쇄의 담론분석 틀을 이용해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구성 기제가 “...사실”, “...현장”, “...는 것”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선구성 기제는 이미 이데올로기와 특정 입장에 의해 구성된 ‘상상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강진숙, 2006). 또한 반복적인 단언(assertion)을 통해 특정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선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절합 기제는 담론의 내적 개입에 의해 작용되는 것이다. 절합이란 단어, 표현, 명제 등을 선택 및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느낌(sense)’과 ‘확신’의 효과를 낳는다(강진숙, 2016, 177쪽). 가령 ‘~때문에’와 같은 표현은 개별 문장을 인과관계로 연결하여 주절의 사고를 “지지하는 효과(sustaining effect)”(Pêcheux, 1982, p. 114)를 일으켜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정하거나 특정 대안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등의 표현은 주제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개별 발화주체의 입장을 보편적인 ‘인간’의 상황이나 판단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강진숙, 2016, 177쪽). 절합 기제는 은유적 용법과 서술어 용법을 통해 더 정교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은유적 용법이란 특정 사안을 익숙한 용어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화 하고 주체의 특정 입장을 보편적 사실로 구성한다. 서술어 용법이란 담론에서 화자가 어떠한 서술어를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언술주체가 특정 입장에 따라 주체를 어떻게 일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김영은, 김성민, 2008).

이처럼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인 선구성 기제는 ‘현실성 효과’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상상적 이미지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킨다. 한편 절합 기제는 담론 내부의 단어, 표현, 명제들을 선택하거나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로써 담론 속 호명된 주체가 어떠한 확신을 갖게 하거나 특정 느낌이 들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2) 담론의 주체 구성 방식: 호명 테제

페쇠는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과 호명 테제에 천착하여 호명을 통한 담론의 주체구성 방식을 발전시켰다. 알튀세의 호명 테제가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천기제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히는 틀을 창안했지만 보다 역동적인 주체의 실천적 대항방식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1970)에서 호명 테제의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제1명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데올로기 내의 실천 외에 어떤 실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2명제는 주체의 의한, 주체들을 위한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란 없다(Althusser, 1970/1991, p. 174)이다. 그러나 알튀세의 주체 호명 테제는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페쇠는 두 가지 범주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매개명제”를 제시하여 알튀세의 명제를 구체화하고 호명 테제를 재정리한다. 이로써 페쇠는 담론이론의 호명 테제를 첫째 담론구성체의 복합적 전체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담론구성체들의 결합이며, 둘째 모든 담론은 속성상 담론의 주체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담론의 호명 테제임을 천명한다(강진숙, 2006). 이때 담론의 주체형태는 “생산관계의 재생산(reproduction)과 변혁(transformation)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조건들(the ideological conditions)”(Pêcheux, 1982, p. 129)을 통해 구성되며, 따라서 주체 범주는 단일 형태 혹은 지배구조의 재생산에 복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변화의 측면에서도 발생한다(강진숙, 2016).

페쇠는 알튀세의 동일시와 반동일시의 주체형태에서 나아가 새로운 주체구성 방식인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Pêcheux, 1982, p. 158). 페쇠가 제시한 세 가지 주체화 방식인 동일시, 반동일시, 역동일시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시(identification)란 호명 당한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미지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착한 주체(good subject)들의 양식이다(Macdonell, 1986/1992, p. 53). 자명성의 원리에 의해 호명 당한 주체는 호명하는 주체가 말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호명에 의해 동일시된다. 이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나타나는 ‘오인(misrecognition) 과정’이 부름 당한 주체로 하여금

자유로운 믿음이라는 ‘자명성’을 갖게 하며, 너와 내가 호명을 받은 주체들이라는 믿음인 자명성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효과”(Althusser, 1970/1991, p. 176)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명성 효과에 의해 충분한 고려 없이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반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는 동일시를 거부하는 나쁜 주체(bad subject)의 양식으로서 동일시와 역동일시의 중간 형태이다. 반동일시의 대주체와의 거리두기, 의심, 도전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인 자명성에 반대한다. 이들은 착한 주체들에 의해 생생해진 의미들을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식으로 말하며 그들에게 되돌려준다(Macdonell, 1986/1992, p. 53). 폐쇄는 반동일시가 동일시의 자명성을 거부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역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언뜻 동일시와 반동일시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영역 내에서 대칭적 구도를 이룬다는 것이다(강진숙, 2006). 한편 폐쇄가 제시한 역동일시는 새로운 주체형성의 등장을 암시한다. 동일시와 반동일시의 주체형태는 여전히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반면, 역동일시의 주체형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견제하고 새로운 실천 유형을 생성한다. 역동일시의 주체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 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동일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견제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변형 및 치환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역동일시란 담론구성체와 세계체제의 작동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실천에 편승함과 동시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에 의해 발생된다(Macdonell, 1986/1992, p. 54).

III.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전장연 지하철 투쟁 관련 담론분석을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언론은 자사의 주관적 시각을 보도에 반영하여 한 사회 내의 이데올로기적 주장과 가치를 보다 편향적으로 드러내려는 경향이 강하다(김동윤, 2015). 따라서 국내 보수와 진보 언론을 대변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하는 것이 각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의미의 대립을 찾아내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분석 기간은 전장연 지하철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시작한 달인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18일까지 총 16개월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였으며, 기사의 누락이 없도록 ‘전장연’, ‘지하철 투쟁’, ‘전장연 시위’, ‘장애인 시위’, ‘이동권 시위’, ‘지하철 시위’ 등 여러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 기사 제목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으로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 제목 및 본문에 ‘전장연’ 혹은 ‘이동권’ 등의 키워드만 언급되어 있는 기사와 중복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보도 기사를 제외하고 해설 기사와 기획 기사, 사설, 칼럼 등 언론사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된 기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보도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표현이나 추측성 표현을 지양하고 오직 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추출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역시 단순 사실 전달, 발언 인용으로 기사 전체의 문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도 기사를 제외하고 각 언론사 별 수집된 기사의 유형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조선일보는 해설 기사 10건, 사설 및 칼럼 6건으로 총 16건, 한겨레신문은 해설 기사 3건, 기획 기사 6건, 사설 및 칼럼 32건으로 총 41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은 다음 <표2>와 <표3>과 같다.

〈표 1〉 분석 기사의 유형

언론	기사 유형			합계 (건)
	해설 기사	기획 기사	사설·칼럼	
조선일보	10	-	6	16
한겨레신문	3	6	32	41

〈표 2〉 ‘전장연 이동권 시위’ 관련 조선일보 기사 제목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2022.04.01.	[동서남북] 이준석 대표가 쏟아올린 장애인 이동권 문제
2022.04.21.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장애인총연합 “이런 방식 반대”
2022.10.19.	전장연, 교통방해 유죄 판결 비난하며 또 지하철 시위 2 9호선 차질
2022.10.22.	전장연 시위대의 ‘휠체어 남자’, 그의 충격적인 정체는
2022.11.09.	전장연 시위에 5호선 지연... 시민들 “매일 일찍 나와도 지각” 분통
2022.11.10.	‘다음 열차, 84분후 도착’ 전장연 5호선 출근길 시위에 시민들 분노
2022.11.12.	출근길 시위로 닷새에 한번꼴 열차 1시간 지연
2022.11.15.	[독자 마당] 전장연 지하철 시위 언제까지 외
2022.12.02.	전장연, 전날 퇴근길 이어 출근길 시위 4호선 지연되고 경찰과 과격 몸싸움도
2022.12.03.	전장연, 출근길 천천히 탔다가 내리기 반복 열차 출발 못해 직장인들 택시 타러 뿔박질
2022.12.10.	[사설]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이제야 ‘무정차 통과’ 대책 나온 이유
2022.12.16.	[사설] “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2022.12.17.	“0.1% 전장연이 장애인 혐오 키워 내주 출근길 맞불시위”
2022.12.20.	또 고장, 또 시위 시민들 ‘지하철 스트레스’
2022.12.21.	[사설]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2023.01.21.	[기자의 시각] 巨野가 전장연 중재 나서야
합계	16건

〈표 3〉 ‘전장연 이동권 시위’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2021.12.09.	[사설]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승강기 폐쇄한 서울교통공사
2022.02.09.	[사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대선후보들이 나서라
2022.02.17.	우아하게 살고 싶다
2022.02.24.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이동의 명령, 이동의 권리
2022.02.27.	장애인을 위한 ‘지연증명서’
2022.02.28.	고립된 이들의 시간과 정치
2022.03.05.	정치하는 분들이여, 발목이 붙잡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2.03.22.	[아침햇발] 쓸모 있는 어느 대선 이야기 / 안영춘
2022.03.23.	보편적 이동권 보장, 지하철 노동자가 함께하겠습니다
2022.03.27.	[사설] 이준석 ‘장애인 시위에 경찰 개입’, 여당 대표 자격 없다
2022.03.28.	[사설] ‘정치의 소명’ 일깨워준 김예지 의원의 ‘무릎 사과’
2022.03.30.	[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장애인 시위’에 대하여, 정글에 언론은 필요없다
2022.03.30.	우리 모두가 함께 멈춰 선 24분
2022.03.31.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이준석 대 공화국
2022.04.01.	[복습뉴스] 또 갈라치기…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판’은 문명적인가
2022.04.04.	[김영희 칼럼] 박경석은 힘이 세다
2022.04.04.	아름다운 것의 이면
2022.04.04.	출퇴근 지하철에서 소외된 사람들
2022.04.05.	[하종강 칼럼]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노동3권
2022.04.09.	[논설] 장애인과 ‘배틀’, 이준석 대표의 ‘무한도전’
2022.04.09.	‘시사직격’ 차별금지법 현재와 내일까지 담은 탐사의 백미
2022.04.17.	때로는 플레이어리스트처럼
2022.04.18.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22.04.21.	[아침 햇발] ‘비문명’의 역습이 시작됐다 / 안영춘
2022.04.23.	‘언제까지’ 답하지 않을 것인가, 시민의 ‘시간’을 빼앗는 자들은
2022.04.29.	숫자에 가려진 ‘장애인 이동권’…94% 승강기 설치하면 뭐합니까
2022.05.01.	세상에 없던 길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2022.05.18.	기부·쪽지·환불...혐오가 우리를 괴롭힐 때 “뭐라도 해”
2022.06.19.	[아침햇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이종규
2022.06.23.	이것이 경찰의 지상과제입니까? [슬기로운 기자생활]
2022.07.19.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갈 수 있는 유토피아
2022.12.22.	[아침햇발] 전장연 21년 외침과 ‘립서비스’ 정치
2022.12.24.	시위=나쁜 것? 시민은 정부 쫓는 ‘불나방’이 아니다
2022.12.29.	[슬기로운 기자생활] 어떤 지하철 시위 기사를 쓰게 될까
2023.01.01.	[홍은전 칼럼]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투쟁
2023.01.02.	[사설]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시
2023.01.04.	[사설]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2023.01.08.	경찰, 출근길 시위 사전봉쇄 방침...“결정은 교통공사 몫” 책임돌려
2023.01.09.	이 세상에 장애인은 없다
2023.01.13.	[단독] 멀쩡한 승강기에 ‘고장’...전장연 막는다고 교통약자도 막았나
2023.01.16.	지하철 기관사가 본 전장연 시위
합계	41건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담론 분석을 위해 폐쇄의 담론이론에 근거한 선구성 기제, 절합 기제를 추출하고 호명을 통한 담론의 주체화 구성 방식을 분석 방법으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담론의 외적 개입 분석을 위해 선구성 기제를 추출함으로써 두 언론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으며, 담론의 내적 개입 분석을 위해 절합 기제를 추출함으로써 절합을 통해 기사에서 선구성된 입장들을 보편적 사실로 구성하는지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호명을 통한 담론의 주체화 구성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두 언론이 어떠한 동일시와 반동일시, 그리고 역동일시 중 어떠한 주체형태를 호명하고 있는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선구성 기제를 통한 뉴스 담론의 의미화 방식

담론의 외적 개입인 선구성 기제는 담론 내에서 보편적 주체로서 호명된 개인에게 현실성을 제공하고, 이데올로기와 특정 입장에 의해 단언(assertion) 밖에서 이미 구성된 ‘상상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선구성 기제가 조선일보에서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았다.

조선일보는 전장연의 시위가 불법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래 인용기사들에서 “...는 것...”, “...일 것...”과 같은 선구성 기제가 사용되었는데 “...는 것...”과 같은 표현은 “...사실”과 유사한 현실성 효과를 발휘한다(강진숙, 2016).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상황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특정 이데올로기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조선일보는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 시위로 단언하고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의 애로, 시민의 피해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컨대 아래 인용의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 “시민들의 ...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에서 언술주체는 시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초래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선구성 기제 “...는 것...”을 사용해 현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위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현실을 선구성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인용기사에서 한국에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처럼 공권력이 방치하는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역시 선구성 기제인 “...일 것...”을 사용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는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며, 불법 시위와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뿐인 것처럼 현실을 구성한다.

이어 전장연 단체의 시위 방식에 대한 몇몇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공권력이 이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장연 단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시위로 대다수 시민의 생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이라는 선구성 기제를 통해 상식적인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한 것으로 전제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적인 시위로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당국과 경찰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정부는 전장연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조선일보, 2022.11.15.)

불법 시위를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의 생업을 방해하는 시위는 빨리 중단시킬수록 좋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한국에선 1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이 공권력을 대신해 불법을 막겠다며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 2022.12.16.)

한국 사회엔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들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 옥상을 점거했고,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들은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몇 달 간 사장실을 점거했다.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1년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조선일보, 2022.12.21.)

자기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평일 기준 5일에 1번꼴로 시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평균 56분 지하철이 지연됐다. 그 안에 타고있던 시민들의 시간 손실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조선일보, 2022.12.21.)

반면 한겨레신문은 “...는 것...”, “...일 게다”, ‘당연히’, ‘사실은’과 같은 선구성 기제를 통해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이 권리를 얻기 위해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불평등한 사회에 있는 것으로 현실을 선구성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박창석, 2021), 한겨레신문은 “당연히”, “...할 권리”라는 선구성 기제를 사용하여 이동권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누구나’의 범주에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해?” 욕하는 사람들도 묻는다. 나도 궁금하다. 종부세 깎아주는 덴 발 빠르면서 이동권 보장하는 건 왜 이토록 더더야 하나? 왜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하나? 우아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겨레신문, 2022.02.17.)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이 촉발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는 것...”, “사실” 선구성 기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에 대한 비장애인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인식, 비주류 사회의제로 간주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시되지 않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아래 인용기사에 따르면 전장연 지하철 투쟁이 몇차례 있기까지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음”과 같은 선구성 기제를 통해 현실 속 사람

들은 장애를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장애인의 죽음과 투쟁으로 이뤄진 것임을 아는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제된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비장애인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당장 자신의 삶에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로 구분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 구성원들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기에 장애인에게 편리한 교통시설은 곧 비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동권 투쟁은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의 선구성 기제를 통해 구성하고 있다. 즉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의 방안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차 및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도 이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편리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것들을 요구하고 현재까지도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을 전국에 도로를 신설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산을 이동권 보장 예산에 투입하면 이러한 시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2022.03.23.)

분명한 사실은 그 몇차례의 시위가 있기 전까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 정치인들이 시급하게 해결하려고 나서는 중요한 사회 의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2022.04.05.)

사람들은 대체로 장애를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에게나 이롭다는 사실이다. 저상버스가 늘어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임산부, 유아차를 끄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22.06.19.)

장애인의 죽음과 투쟁으로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아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2023.01.16.)

2. 절합 기제를 통한 뉴스 담론의 의미화 방식

절합 기제는 담론의 내적 개입에 의해 작용되는 것으로 단어와 표현, 명제 등을 선택 및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느낌’과 ‘확신’의 효과를 준다. 은유적 용법과 서술어 용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나타나며 독자에게 익숙한 용어로 치환하여 특정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보편적인

사실로 구성한다.

2022년 12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여러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여야의 대처로 인해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장연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전장연 측은 ‘휴전’이라는 용어는 마치 전장연이 서울 시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취지기에 놀랍다고 표명하면서, 그럼에도 제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글을 통해 ‘휴전’이라는 제안에 전쟁에서 적군을 대한 방식에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휴전을 수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휴전’ 중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무정차’, ‘1분 늦으면 큰일난다’ 등의 방송을 통해 전장연이 마치 적군인 것 마냥 무찌르는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했다며,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래 인용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과 전장연의 제안 수용에 대해 ‘말장난’, ‘불법’, ‘폭력’, ‘...때문이다’의 절합 기제를 통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전장연 측이 지하철 투쟁은 비장애인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과 동일한 ‘탑승 행위’라고 주장한 것을 ‘말장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장연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불법’과 ‘폭력’의 절합 기제를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열차 운행 방해’인 불법 시위로 단정하여 공권력이 마땅히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표현과 이를 수용한 전장연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불법시위를 개진한 전장연과 이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 서울시의 관계가 전복되어 오히려 전장연이 ‘갑’이 되어 시위의 통제권을 가진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같은 공권력의 방치가 사회 내 불법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 때문이다” 절합 기제를 통해 선구성된 주절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차질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등치시키고 ‘천문학적’이라는 은유적 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사례나 논증을 제시하지 않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손실이 짐작건대 상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미디어에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전장연이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불법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휴전’이란 표현을 쓰고, 이들이 마치 선심 쓰듯 수용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 전장연은 자신들의 행위가 ‘열차 운행 방해’가 아닌 ‘탑승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말장난일 뿐이다. ... 그 안에 타고있던 시민들의 시간 손실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1년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조선일보, 2022.12.21.)

조선일보가 전장연 시위의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한다. 한겨레신문은 “... 때문이다”와 같은 절합기제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이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이유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기획재정부의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 반대에서 찾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는 등 다소 거친 방식도 동원된다. 그래야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21.12.09.)

이런 현실에서 최근에 장애인들이 더 격렬히 시위에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22.02.28.)

장애인 단체들의 이동권 투쟁으로 2021년 12월 31일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등에 소요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이 원안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죽어라고 싸워서’, ‘그림의 떡’과 같은 절합 기제를 사용하여 이들이 고된 투쟁 끝에 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성취했으나 정작 이들이 원하는 바는 얻지 못하였음을 사실로서 구성하고 있다.

쉽게 말해 기재부가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싶으면 배정하고, 배정하고 싶지 않으면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애초 원안은 의무조항이었는데,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해서 임의조항으로 뒷걸음질친 겁니다. ... 그러니까 전장연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싸워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림의 떡’이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2022.04.09.)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이 있는 후, 2022년 12월 24일 23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작년보다 1조3000억여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 증액으로 끝났다

며 2023년 1월 2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들에서 한겨레신문은 전장연 지하철 투쟁과 관련 있는 집단들과의 관계를 ‘앵무새’, ‘망령’, ‘컨베이어벨트’, ‘걸림돌’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재구성하고 있었다. 가령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 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 등 발언하며 강경하게 대응해왔는데,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이들의 반복적 언행을 ‘앵무새’에 비유함으로써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법대로’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정부와 국회 때문일까. 새해 풀지 못한 숙제가 늘어날 것 같은 암울한 예감이 든다. (한겨레신문, 2022.12.29.)

서울시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의 전장연 시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거라고 한다. 이참에 장애인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2023.01.04.)

수많은 노동력을 실어 나르는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컨베이어벨트’이며 물건을 신속하고 오류 없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컨베이어벨트를 고장 낼 만한 ‘걸림돌’을 바로 제거해내야만 한다. 이처럼 한겨레신문은 ‘컨베이어벨트’, ‘걸림돌’이라는 비유적 표현의 절합 기제를 통해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잠시 멈추게 한 중증장애인들은 ‘컨베이어벨트’ 위에 있어서는 안되는 존재, 공장 가동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존재, 따라서 비장애인들에 의해 빨리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로 구성한다.

열차 문이 닫히면 이 시공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존재들이 망령처럼 행진을 시작한다. 오직 어깨와 팔의 힘만으로 마비된 하반신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성난 시민들의 발아래를 기어간다. ... 출근길 지하철이란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벨트다. 컨베이어벨트 위의 인간은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그 레일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자들의 이름이 바로 장애인이다. (한겨레신문, 2023.01.01.)

앞서 한겨레신문은 선구성 기제를 통해 시위하는 장애인과 성숙한 시민이라는 하나의 동료시민으로 구성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 인용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는 ‘아픈 곳’, ‘소리 나는 곳’이며, 이들의 권리 보장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 즉 ‘비를 맞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적 용법의 사용은 사안을 의미화하고 특정 입장을 보편적인 사실로서 구성한다.

아픈 곳, 소리 나는 곳에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몸부림과 투쟁이 나와 조직을 불편하게 하면 침묵하거나 무시한다. ... 연대는 당장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뒤로한 채 함께 비를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겨레신문, 2023.01.16.)

3. 호명을 통한 담론의 주체화 구성 방식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 담론에서 어떠한 주체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언론이 동일한 사안에 취하는 적대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사설과 칼럼, 논단 등은 독자를 적극적 대화상대로 보고 담론 내로 끌어들여 화자의 입장과 일치시키고 한다(강진숙, 2006).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담론 내 ‘우리(us)-그들(they)’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각 언론사가 구성하는 의미의 대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일보는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이는 정부와 경찰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방치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고 “남을 괴롭히는 방식”이며, 지하철 승객 등 수많은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설주체는 불법시위를 벌여 시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전장연을 ‘그들’에 위치시키고, 전장연이 집단의 이익 달성을 위해 불모로 한 시민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시민들을 ‘우리’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장애인들도 나름의 절박함이 있겠지만 시민 불편을 불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적인 시위로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당국과 경찰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정부는 전장연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조선일보, 2022.11.15.)

자기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 하지만 정부와 경

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 한국 사회엔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 옥상을 점거했고,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들은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몇 달 간 사장실을 점거했다.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1년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나. (조선일보, 2022.12.21.)

2022년 12월 12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과 무정차 관련 회의를 열고 전장연 시위 관계자들이 고의적인 지연 행위를 벌이는 경우 해당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할 것이며 13일 출근길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전장연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경찰 또한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무정차 통과라는 교통 대책은 수많은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 특히 이동에 제약이 큰 지체장애인들이 현장에 나와 비장애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강행한 무정차 통과 대책은 전장연 지하철 투쟁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하나, 시위로 인해 “지하철 노선 전체가 마비돼 그 시간대 모든 승객이 발이 묶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당장의 비장애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우선으로 한 서울시의 대책에 긍정했다. 더불어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운다며 우려한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 10여 명과 그 외 장애인들이 시위 중단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와 경찰이 진즉 불법 시위를 중단시켜야 했었으나 그 역할의 부재로 인해 보다 못한 장애인 집단들이 스스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고 말한다. 그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로서 장애 인권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전장연의 시위는 ‘이들에게도’ 잘못된 것이고 장애인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전장연이 같은 집단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사회적 제재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나타나듯, 언론주체는 “그동안 시위를 바라본 시민과 침묵하는 다수 장애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라며 ‘침묵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을 착한 주체로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음에도 다수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 비장애인들을 괴롭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연술주체는 전장연 시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시위를 막아선 다수 장애인들’, 전장연 지하철 투쟁에 따른 ‘교통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와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를 지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하는 지하철역에서는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 승객들은 지하철을 못 타도 지하철 노선 전체가 마비돼 그 시간대 모든 승객이 발이 묶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지만 이들의 시위를 사실상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교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정차 통과 등 교통 대책만 이 아니라 전장연 시위 방식처럼 일부러 시민 다수에 불편을 주는 방식의 불법 시위에 대한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조선일보, 2022.12.10.)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 10여 명은 시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위를 바라본 시민과 침묵하는 다수 장애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 시위대가 불법 행위를 중단하거나 정부가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 해법은 없다. 보다 못한 장애인 스스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면 시위를 막아선 장애인들의 이런 주장이 더 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이들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2022.12.16.)

그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들이 논쟁하고 다투야 할 대상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와 보건복지부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22.12.17.)

조선일보는 전장연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전장연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전장연이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이 제때 개입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장연 지하철 투쟁의 시발점인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항이라며 문제 해결의 책임을 위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아래 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위 초반 조선일보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혐오적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난장판’으로 변질되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야(與野) 모두가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연술주체는 더불어민주

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그들’의 위치 범주에 넣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장연 시위와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전장연 편에 서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강요받고 있다고 선언한다. 가령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에 탑승해 국회로 출근하는 ‘휠체어 지하철 출근 챌린지’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들을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즉 전장연 시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 있는 자이자 ‘우리’ 시민들과 분리된 존재로서 바라보며 ‘그들’ 위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일보에서 ‘우리’에 위치되는 범주에는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 ‘침묵하거나 시위를 막아선 다수 장애인들’, ‘교통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치되며, 이에 대립하는 ‘그들’의 위치 범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 전(前)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찰’이 배치된다.

공(功)은 정책 당국 몫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 이 대표가 전장연을 비판하자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정치 진영 논리와 얽혀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쉽다. ... 누가 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선일보, 2022.04.01.)

(문재인) 자신의 정부가 아니라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입장이었다.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출근한 뒤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야당이 됐다고 시위를 부추긴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러는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대책 없이 불편을 강요받았다. 궁여지책으로 인터넷에 ‘전장연 시위 예보’까지 나왔다. 1년 동안 불편을 겪은 시민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2022.12.10.)

조 위원장 요청에 응한 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지도부 관계자에게 묻자, 그는 “서울시 문제에 민주당이 개입하면 얻을 게 뭐가 있겠냐”며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지고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강조할 뿐 중재 의지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시설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국비 증액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 제1야당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전장연 시위 문제에 눈을 감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설 연휴엔 서울역 귀성길 인사보다는, 전장연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민생 우선’ 기조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조선일보, 2023.01.21.)

〈표 5〉 조선일보의 ‘우리-그들’ 구조

우리(Us)	그들(Them)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 침묵하거나 시위를 막아선 다수 장애인들, 교통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 전(前)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찰

2022년 3월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장연 시위에 대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라고 발언했다. 전장연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과 책임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비문명적’인 것이며 ‘문명 사회’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한겨레신문의 인용과 같이 ‘불법 시위 장애인’ 대 ‘선량한 시민’의 구도를 형성하는 ‘문명 사회’ 이데올로기에서의 전장연은 비문명인이자 ‘나쁜 주체’로서 구성된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전장연 단체를 비문명인으로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이를 역동일시하여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고 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문명 사회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을 ‘불모’로 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이를 어기고 불법 시위를 하는 전장연이 비문명인으로서 구성되었다면, 한겨레신문에서의 문명 사회는 “휠체어를 탄 시민들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들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이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 사회”,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명 사회’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비문명적 사회’라며 역동일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배제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지하철에 오른 이들에게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 삼지 말라 일갈하는 사회”를 ‘그들’의 위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비문명인’ 전장연 대 ‘문명인’ 선량한 시민들의 구조는 연술주체에 의해 역동일시 됨으로써, 비문명적 사회를 문명 사회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전장연이 ‘문명인’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시민들, 전장연을 비난하는 비장애인 시민들이 ‘비문명인’으로 재구성된다.

‘불법 시위 장애인’ 대 ‘선량한 시민’의 구도를 설정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2022.04.01.)

이쯤되면 무엇이 문명이고 무엇이 비문명인지 의문이 든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

서 휠체어를 탄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배제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지하철에 오른 이들에게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 삼지 말라 일갈하는 사회가 문명사회인가. 그보다는 휠체어를 탄 시민들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들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이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 사회가 문명사회 아닌가. 문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장연 시위의 방식이 아닌 그 시위가 드러낸 사회의 비문명성에 집중할 때가 왔다. (한겨레신문, 2022.04.04.)

출근 시간 30분이 늦어지면 화가 나는 건 인지상정이다. 장애인이 싸워온 23년을 알게 되면 미안해지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문명인’이라면 미안해할 줄 안다. (한겨레신문, 2022.05.01.)

고개를 치켜드는 짓조차 버거운 몸이지만 동냥 그릇 같은 은색 강통을 목에 건 채 요란하게 끌고 간다. 그 소리는 국가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탓에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비천한 자’들을 불러온다. 망령들이 외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 “병신이 벼슬이야?”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지!” 문명인들이 이토록 거칠어진 이유는 지각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23.01.01.)

아래 인용기사에서 나타나듯,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다 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의 갈등적 관계를 연대의 관계로 전환시킨다.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돌봄 지원, 권리에산, 노동권 보장 요구 모두 문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운동’이기에 결국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기관사가 작성한 아래 사설에서는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지시를 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내부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있다며 전장연과 같은 ‘우리’ 범주에 위치시키고 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동일시된 호명 주체들이다.

장애인은운동은 여전히 당사자 운동이지만 더는 부문 운동에 머물지 않는다. 이동권, 탈시설, 돌봄 지원, 권리에산, 노동권에 대한 요구 하나하나가 곧 보편적인 운동이다. 나아가 대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벌이는 전면전이다. 쉽게 끝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선자 쪽은 장애인 권리에산 요구에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전장연은

답변을 기다리며 잠시 접었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21일 다시 시작했다. 약자가 세상 모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연대의 요청이다. '비문명의 역습'이 시작됐다. (한겨레신문, 2022.04.21.)

“장애인 권리예산 입법 투쟁을 하필이면 지하철 출근 시간에 하나?”는 불멘소리 앞에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방기한 서울시장과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조직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도할 때, 투쟁때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장애인 투쟁이 길어지는 이유는 함께 비를 맞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 같아 그저 미안하다. (한겨레신문, 2023.01.16.)

2022년 5월 10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열차운행 방해 불법시위’라고 공지하자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시민들이 전장연 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금전적 후원을 하고 인증하는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전장연 단체를 향한 후원 행렬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생각보다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이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전장연의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시민의 갈등적 관계를 연대의 관계로 전환시킨다. 또한 언론주체는 ‘시위하는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 장애인에게 연대하는 비장애인 시민들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견제하고 새로운 실천유형을 생성하는 역동일시된 주체로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오 시장과 서울시 뜻대로만 흐르는 않는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전장연에 대한 후원금과 지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비문명’ 운운하며 전장연 시위를 공격했을 때도 봤던 현상이다. 시위하는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이 오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뜻일 게다. (한겨레신문, 2023.01.04.)

한겨레신문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가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환경이 문제임을 지적한다. 예컨대 비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건물, 교통시설 이용에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의 조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사회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국

가와 사회 시스템에 있으며, 법, 제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장애인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지만 책임을 방기한 탓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에서 유리된 채 존재하고 있으며, 결국 장애인도 직접 거리로 나와 비장애인 시민들의 불평을 대신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지하철에서 보지 못하는 사회, 장애인과 공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에서 비장애인 시민들 역시 의지와 상관없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여진 장애인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에서 ‘우리’에 위치되는 범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위하는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이 배치되며, 이에 대립하는 ‘그들’의 위치 범주에는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 ‘무정차 통과를 지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정부’, ‘국회’, ‘기획재정부’가 배치된다.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승객들에게 연신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수십년간 불편과 고립을 감내해온 장애인들을 향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비난이 향해야 할 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가로막아온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다. (한겨레신문, 2022.06.19.)

일시 멈추긴 했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대란의 ‘상징’이다. ...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은 이런 현실을 동료 시민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엔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되뇌이지만, 결국은 꿈쩍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다. **실제 법과 제도,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거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갈등만 부추긴다.** 지난 21년간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돈을 줄을 천 기획재정부는 정부 성향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인색했다. ... 보기 싫고 불편하다고 ‘무정차’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 함께살자’는 당연한 요구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22.12.22.)

고개를 치켜드는 것조차 버거운 몸이지만 동냥 그릇 같은 은색 쟁통을 목에 건 채 요란하게 끌고 간다. 그 소리는 국가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탓에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비천한 자’들을 불러온다. 망령들이 외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 “병신이 벼슬이야?”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지!” 문명인들이 이토록 저질어진 이유는 지각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23.01.01.)

〈표 6〉 한겨레신문의 ‘우리-그들’ 구조

우리(Us)	그들(The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위하는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 무정차 통과를 지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정부, 국회, 기획재정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폐쇄의 담론분석 틀을 이용하여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탑니다〉 지하철 투쟁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생산하는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폐쇄의 담론 분석은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 푸코의 담론이론에서 나아가 담론의 물질성과 의미의 적대성, 즉 지배적 담론에 대항하는 담론구성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담론의 외적 개입인 선구성 기제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는 “...는 것...”, “...일 것...”, ‘당연한’의 선구성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현실을 선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전장연의 불법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인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는 것...”, “...일 게다”, ‘당연히’, ‘사실은’과 같은 선구성 기제를 통해 인간으로서 보편타당하게 누릴 이동권이 장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이 권리를 얻기 위해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불평등한 사회에 있다는 현실을 선구성하고 있었다.

담론의 내적 개입인 절합 기제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는 ‘말장난’, ‘불법’, ‘폭력’과 ‘천문학적’이라는 은유적 용법의 절합 기제를 사용하여 전장연 지하철 투쟁을 ‘열차 운행 방해’인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공권력이 마땅히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구성하였다. 또한 “... 때문이다” 절합 기제는 불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방치가 사회 내 불법과 폭력을 일상화할 것이라는 선구성된 주절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주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 때문이다”, ‘죽어라고 싸워서’, ‘그림의 떡’, ‘앵무새’, ‘망령’, ‘컨베이어벨트’, ‘걸림돌’, ‘아픈 곳’, ‘소리 나는 곳’, ‘비를 맞는 것’과 같은 비유적 표현의 절합 기제를 통해 전장연 지하철 투쟁의 원인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의 반대에 있음을 보편적 사실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우리(us)-그들(they)’ 구조를 적용해 각 언론사별 호명 테제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는 전장연의 시위에 따른 갈등에 초점을 두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장연을 ‘나쁜 주체’로 구성하고,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애인들을 ‘착한 주체’로 구성하였다. ‘우리’에 위치되는 범주로는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 ‘침묵하거나 시위를 막아선 다수 장애인들’, ‘교통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치되고, ‘그들’에 위치되는 범주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 전(前)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찰’이 배치되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전장연을 비문명인들로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이를 역동일시하여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문명 사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을 ‘불모’로 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비문명인’은 불법적 시위를 하는 전장연으로 구성되었으나, 언술주체는 이를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비문명적 사회’로 역동일시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그들’의 위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비문명인’ 전장연 대 ‘문명인’ 선량한 시민들의 구조를 역동일시 함으로써 비문명적 사회를 문명 사회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전장연이 ‘문명인’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비문명인’으로 재구성하고, 장애인에게 연대하는 비장애인 시민들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견제하고 새로운 실천유형을 생성하는 역동일시된 주체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우리’에 위치되는 범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위하는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들’이 배치되며, 이에 대립하는 ‘그들’의 위치 범주에는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 ‘무정차 통과를 지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정부’, ‘국회’, ‘기획재정부’가 배치되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 담론의 언술주체들은 적극적으로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고 주체를 호명하고 있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은 비장애인들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과 지지 없이는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있어 비장애인의 태도가 중요한 결정인자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미디어가 이들을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이 생산하는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의 시작부터 현시점까지 국내 대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이 행동에 대해 어떠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담론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고 어떤 주체들을 호명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 7-52.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김다연 (2022. 12. 3). 장애인단체 기습 시위...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 지연. YTN.
- 김승현, 유재인, 장근욱 (2022. 12. 19). 시위 8분전 장소 알린 전장연...“그만좀 합시다!” 지하철 시민들 항의. 조선일보.
- 김영은, 김성민 (2008, 10월). KBS 사장 해임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 연구: 미셸 페쇠(M. Pêcheux)의 담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 명숙 (2022). 장애인 시민권 열차는 멈춘 적이 없다: 전장연 지하철 행동의 의미. 비정규 노동, 159, 20-24.
- 박지영 (2022. 12. 19).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이어 탑승 저지...“기본권 침해하는 과잉 대응”. 한겨레신문.
-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 오혜진 (2022). 문명, 능력, 자금심-2022년, 장애 이슈를 통해 본 소수자 정치의 문제적 국면들. 뉴 래디컬 리뷰, 2(3), 175-193.
- 유진우 (2022).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서 지하철을 탑니다. 뉴 래디컬 리뷰, 2(3), 207-220.
- 임세희 (2022).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비판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의 국어교육 적용 방안.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7, 94-109.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3), 106-145.
- 정한울, 이소연 (2022).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https://hrcopinon.co.kr/archives/23500>
- 조한진 (2023).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월간 복지동향, 293, 34-37.
- 허현호 (2022. 4. 3). 10개 시군 저상버스 '0'대..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전주MBC.
- 홍남희 (2016). 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페쇠(M. Pêcheux)의 담론 분석

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3(2), 305-348.

- Althusser, L. (1970).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pp. 127-186).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이진수 (역) (1991). <자본론을 읽는다>. 서울: 두레.
- Hall, S. W. (1980). *Encoding/Decoding*. In S. Hall, D. Hobson, A. Lowe, & P. Willis (Ed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Hutchinson.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서울: 한나래.
- Macdo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Oxford and New York, NY: Basil Blackwell. 임상훈 (역)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Pêcheux, M. (1982 [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H. C. Nagpal, Tran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Woods, R. (1977). Discourse analysis: The work of Michel Pêcheux. *Ideology & Consciousness*, 2, 57-79.

원고접수 : 2023. 9. 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30.	게재확정 : 2023. 11. 28.
--------------------	------------------------	----------------------

Abstract

A Study on the mechanism for discursive constitution of meaning and subject related to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s subway ride action in the Korean Daily Newspapers: Chosun and Hankyoreh

DoE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subject composition of discourse by the Chosun and Hankyoreh newspapers in relation to the subway ride action conducted b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 based on Michel Pêcheux's discourse analysis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Chosun and Hankyoreh newspapers used two mechanisms which are the pre-constructive and articulation for discursive constitution of meaning and subject.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pellation by applying the "us-them" structure, the Chosun and Hankyoreh newspapers formed ideological subjects by composing and calling a good and bad subject. It was found that Hankyoreh newspaper constructed the power-resistance dynamic against the ideology calling SADD as a bad subject and created a new type of practice.

Key words: Michel Pêcheux, discourse, the preconstructed, articulation, interpellation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